

1. 들어가며

북한에서 시장이 확산됨에 따라 주민 생활의 양식이나 의식에 변화가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연구는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의 변화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북한의 시장화에 따른 계층 변화, 일상적 생활 양식의 변화, 공간의 재구성, 주민의 의식 변화 등 시장화가 야기한 변화의 다층적인 측면을 드러내고자 했다.¹⁾ 특히 시장화로 인해 나타난 사회적 변화 중 많은 관심을 받는 대상은 여성으로, 시장활동의 주요 주체가 여성이다보니 여성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이다. 그 결과 북한 여성의 의식이나 생활양식의 변화, 그러한 변화가 북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했고, 북한 사회의 여러 측면 중에서도 가부장적 질서와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늘었다.²⁾

최근 북한 사회에서 시장이 확대되고, 시장의 주요 활동 주체가 여성이라는 점은 익히 알려져 있다. 홍민 외(2016)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공식 시장의 총 수는 404개이고, 시장 안에서 장사를 하는 매대의 수는 총 1,092,992개로 추정된다.³⁾ 그리고 공식 시장에 종사하는 총 인원은 시장관리소 인력과 상인을 포함하여 총 1,099,052명 정도로 추계되는데, 이는 북한 전체 인구의 약 4.4-4.6%에 해당한다.⁴⁾ 이 때 대부분의 매대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은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에 종사하는 여성은 적어도 매대의 수인 1,092,992명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식시장에서 장사가 가능한 여성이 20-65세라고 할 때, 장사가 가능한 인구는 약 7,356,183명이고, 그 중 15%에 해당하는 여성이 장사를 하고 있다고 추정하였다.⁵⁾ 여성의 장사는 공식시장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식시장건물 주변에서 비합법적으로 장사를 하기도 하고, 지역과 지역을 오가며 장사를 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된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장사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 장용석 외(2015)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중 76.7%가 장사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결과로도 이를 추측할 수 있다.⁶⁾

이처럼 변화한 북한의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북한 여성의 경험은 과거와 다른 모습을

- 1) 박희진, “북한의 시장화와 도시공간의 변화 연구: 공식-사적 공간의 관계”, 『북한학연구』 14권 2호, 2008; 김병로, “북한의 시장화와 계층구조의 변화”, 『현대북한연구』 16권 1호, 2013; 장인숙·최대석, “김정은시대 정치사회 변화와 북한 주민 의식”, 『북한학연구』, 10권 1호, 2014; 강동완, “김정은시대 북한 사회 변화 실태 및 북한 주민 의식조사”, 『북한학보』, 39권 2호, 2014, 김병로,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해 본 최근 북한사회의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18권 2호, 2014 등.
- 2) 정은찬, “시장도입에 따른 북한 여성의 경제적 역할 변화”, 세계지역연구논집, 37권 4호, 2019; 조영주, “북한의 시장화와 젠더 정치”, 북한연구학회보, 18권 2호, 2014; 곽연실,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여성의 정체성 재구성”,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20 등.
- 3) 홍민 외,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 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6, 31쪽.
- 4) 홍민 외,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 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6, 32쪽.
- 5) 홍민 외,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 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6, 33쪽.
- 6) 장용석 외, 『북한 사회변동 2015: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서울: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2015, 98쪽.

보인다. 시장 공간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면서 시장을 통해 획득한 자원과 정보를 통해 가족 내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외에도 여러 북한 여성들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여러 현상들은 시장화 이전과 확연히 구별되는 측면도 있고, 시장화 이전의 경험과 사회경제적 맥락의 연속선 상에 놓여 있기도 하다. 이 글인 북한 여성이 보이는 경험의 다양한 측면들이 갖는 의미를 여성 주체의 구성이라는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여성의 주체화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

주체의 문제는 페미니즘 정치학에서 중대한 문제이다. 여성 주체에 대한 고민은 여성 억압적 질서를 해체하고자 하는 목적과 ‘여성’으로 범주화되는 존재의 정체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으로 중요한 이슈이다. 그동안 여성이라는 정체성과 주체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왔던 페미니즘은 더 이상 주체를 고정되어 있거나 변하지 않는 용어로 간주하지 않는다.⁷⁾ 이와 관련해 버틀러는 행위 주체성은 행위자를 선형적으로 가정하지 않고 행위를 통해서만 행위 주체가 형성된다고 보며, 주체는 고유한 본질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담론 안에서 담론을 생산되는 것이며 단어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맥락 속에서 발언함으로써 행동한다고 보았다.⁸⁾ 이러한 버틀러의 여성 주체에 대한 관점과 논의는 본질적인 여성으로서 존재가 아닌 여성이 행하는 행위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행위가 이루어지는 맥락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질 때 여성의 행위가 갖는 의미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질적인 여성 또는 단일화된 여성이 아니라 여성 ‘들’을 드러낼 수 있고, 여성의 선택과 행위에서 드러나는 모순들을 해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젠더질서가 재생산, 변형되는 동학을 드러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성 주체, 여성의 주체화, 주체성은 정체성 논의와 여성 경험의 해석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그동안 젠더 연구는 여성의 경험을 해석하는 데 있어 구조와 행위의 이분법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를 꾸준히 전개했다. 구조와 행위에 대한 논의들은 각각의 맥락 속에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구조와 행위 중 어느 한쪽에 우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어떻게 매개되고 구성되는가에 관심을 둔다는 점이다. 특히 젠더 구성과 관련해서는 젠더가 사회적으로 구성되면서 동시에 행위자들의 실천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젠더는 권력의 기획이나 구조적인 맥락을 통해 구성되기도 하지만, 사회구성원의 실천을 통해서도 생산 및 재생산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나아가 젠더는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되는 것이라는 논의로까지 이어진다. 수행성의 논의는 존재하는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될 뿐이며 수행의 과정에서 반복과 모방, 패러디를 통해 그 의미가 재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버틀러(Judith Butler)는 정체성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수행될 뿐이며, 반복된 실천을 통해 질서가 생성되고 고착화되면서 사회적 사실로 자리잡는다는 것을 지적하는데,⁹⁾ 이러한 정체성

7) 주디스 버틀러, 『젠더 트러블』, 파주: 문학동네, 2008, 87-88쪽.

8) 조현준, 『젠더는 패러디다』, 서울: 현암사, 2014, 11쪽.

9) Judith Butler, Gender Trouble, Routledge, 1991, p.24.

개념은 그러한 수행이 이루어지는 맥락과 효과에 관심을 두게 한다. 시장화에 따른 북한 여성의 의식과 경험의 변화 역시도 그러한 수행을 행하는 맥락과 효과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여성의 경험과 실천이 특정한 방향, 다시 말해 기존 질서를 전복시키거나 유지시킨다는 이분법적 해석이 아니라 각 경험과 실천이 갖는 중층적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의 주체의 행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개념이 데니스 칸디요티(Deniz Kandiyoti)의 ‘가부장적 협상’ (patriarchal bargains)이다. 칸디요티는 가부장적 질서 하에서 여성의 행위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가부장적 협상’을 제안한 바 있는데, 칸디요티는 주어진 조건 속에서 선택하는 여성들의 전략화를 가부장적 협상이라고 하였다.¹⁰⁾ 이는 가부장적 질서 하에서 여성의 주체성을 인정할 것을 제기하는 개념으로, 여성이 무조건 피해자의 위치에 놓여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주목한다. 그리고 여성이 기존의 질서를 전유해내는 방식을 포함함으로써 가부장적 질서를 유지, 변형시키는 지점들을 드러내는 것에 관심을 둔다.

이러한 실천, 가부장적 협상 등의 논의는 북한 여성의 경험을 저항 혹은 순응이라는 방식으로 단순화시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갖는 의미의 다층성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새롭게 발견되는 여성 주체의 행위와 선택의 의미를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사회적 관계의 변화와 개인성 획득

주체의 구성에서 ‘나’라는 정체성은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정체성은 취향, 신념, 태도와 생활양식의 기호를 통해 의미화되는 본질로, 담론적-수행(discursive-performative)을 통해 구성된다.¹¹⁾ 이는 정체성은 타고나는 것, 이미 주어진 것이 아닌 맥락적이고 구성적인, 그리고 수행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할 때, 사회적 관계는 ‘나’를 어떻게 정체화하고 행위성을 발휘하느냐에서 매우 중요한 관찰의 지점이다. 사회적 관계는 개별 개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집단의 전체적인 실체를 형성하고, 사회적 존재의 재생산을 제한하거나 변형, 규제한다.¹²⁾ 따라서 여성이 주체성을 발휘하는 중요한 장으로서 사회적 관계를 주목해야 하고, 사회적 관계의 변화가 여성 주체를 새롭게 구성해내는 방식을 살펴보아야 한다.

북한 여성이 맺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 중에서 시장화로 인해 변화된 양상이 두드러지는 관계는 배우자 또는 이성관계,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국가와의 관계이다. 우선 배우자 또는 이성관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동안 북한 당국은 친밀한 관계를 ‘혁명적 동지애’라는 것을 통해 의미화해왔다. 그에 따라 애정을 갖는 이성이나 친구, 배우자와의 관계 역시 개인적 ‘친밀성’이 중요하기 보다는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가 강조되면서 각각의 관계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로 수용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전체주의 사회에서 모든 개인이 원자화되어야

10) Kandiyoti, Deniz. "Bargaining with Patriarchy." *Gender & Society*. Vol. 2. NO. 3. Newbury Park, Calif.: Sage.

11) 크리스 바커·다리우스 갈라신스키 지음, 백선기 역, 『문화연구와 담론분석』(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pp. 46-47.

12) 존 클라크·스튜어트 홀·토니 제퍼슨·브라이언 로버츠, “하위문화, 문화, 그리고 계급”, 『문화, 일상, 대중: 문화에 관한 8개의 탐구』(서울: 한나래, 2005), p. 212.

국가의 통제가 용이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¹³⁾

하지만 시장화의 확산으로 여성의 의식이 변화하면서 연애관계 등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 연애는 사적 감정으로 여겨진다고 보다,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에 기반한 혁명적 관계로 담론화되었다. 결혼 역시 개인과 개인의 애정에 기반을 두었다기 보다 혁명적 관계의 결합이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북한 사회에서는 개인적 감정을 중시하는 연애가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이는 결혼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통적 결혼 관습에 따라 북한에서는 1970년대까지는 배우자 선택을 주로 중매를 통해 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야 연애결혼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 이후에는 연애결혼이 더 많은 수를 차지한다고 한다. 연애관계에서 가족이나 조직의 뜻보다 개성과 취향이 중시되는 경향이 나타나고,¹⁴⁾ 이러한 자유연애의 증가는 결혼과 연애를 분리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처럼 연애, 사랑이라는 감정의 대두와 연애관계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근대적 개인으로서 자율성에 대한 인식 확대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자유연애는 단순한 사랑타락을 넘어 자신만의 개인성을 획득하는 사건이고, 사회 질서에서 규정된 위치에서 벗어나 개인과 개인 사이의 친밀한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¹⁵⁾ 이러한 과정을 통해 친밀성을 중심으로 한 관계에서 여성은 자신을 어떻게 위치시키고 어떤 규범을 수행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되며, 기존에 당연하게 여겨졌던 인식과 관습을 재해석할 여지가 생겨나게 된다. 친밀한 관계가 개인과 개인의 관계로 인식됨에 따라 결혼과 연애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고, 이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이나 경험들을 여성 개인을 중심으로 재해석하게 되는 것이다. 결혼의 기피, 출산의 기피 역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과거 결혼과 출산은 여성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로 여겨졌던 것과 달리, 선택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난다. 다시 말해 출산하지 않을 권리, 결혼하지 않을 권리 등을 관계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성의 획득, 권리에 대한 인식 확대는 관계를 재구성하는 힘이 될 것이고, 사회적 관계의 변화는 결국 사회질서의 변화를 야기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배우자 외에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지점은 자녀와의 관계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여성에게 중요했던 어머니노릇은 자녀를 먹이고 입히는 것이었다면, 이후에는 자녀를 능력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중요해졌다. 자녀 양육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내용의 변화는 여성의 어머니노릇에 변화를 야기했고, 그 결과 여성의 네트워크에도 영향을 미쳤다. 자녀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리적인 교육과 실리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리고 남들 보다 능력을 키우기 위해 여성들은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기 시작했다. 사교육은 자녀의 학업능력에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여성의 어머니노릇의 변화를 야기하였다. 예전에는 교육을 학교에 전적으로 맡기고 자녀가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는 정도가 자녀 교육과 관련한 주요한 어머니노릇이었다. 그런데 사교육은 자녀 교육을 여성이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자녀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은

13) 서재진, 『또하나의 북한사회』(서울: 나남출판, 1995), p. 310.

14) 이인정, “1980년대 이후 북한 ‘새세대’의 가치 변화 연구: 「청년전위」분석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 박사학위논문, 2004), pp. 190-191.

15) 권수현, “삶의 정치로서의 친밀성”, 『한국여성철학』 제15권(2011), p. 103.

여성의 어머니로서 역할이 강화된 모습을 보인다. 결국 능력이 강조되는 사회적 변화는 기존 어머니노릇에 자녀 교육의 관리자 역할을 추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현재의 사회 현실을 인지하고, 자녀의 진로를 고민, 결정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이를 실행에 옮기면서 자녀 진로에 대한 관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시장화와 그로 인한 인식의 변화는 여성으로 하여금 북한 사회에서 살아남는 것, 자녀의 미래에 대한 인식과 구상을 구체화하면서 새로운 어머니노릇을 수행하게 하고, 적극적인 자녀의 미래에 대한 기획자가 되게 한다. 이러한 어머니노릇의 수행을 위해서는 현재 삶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미래에 대한 기획 속에서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적극적인 행위성이 부각된다. 과거 자녀의 진로를 결정하거나 정보를 획득했던 방식은 주로 남성들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상대적으로 공적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 정보가 많았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자녀 진로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남편의 의견을 따른다는 것이었다. 이와 달리, 최근 북한의 여성들은 자녀 교육과 관련한 정보를 직접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여성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고 한다. 이는 여성 활동의 장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여성 활동 공간의 확장은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새로운 문화와 삶의 양식에 대한 변화를 수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부부 관계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주장할 수 있게 되었고 가정 내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어머니 노릇이 갖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물론 여전히 자녀 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 전가되고, 오히려 과거보다 역할의 내용이 더 많아졌다는 한계는 있지만 여성이 자녀의 삶에 대한 적극적인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미래에 대한 구상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하고 인적네트워크를 확장해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여성 주체의 실천이 갖는 변화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국가와의 관계 측면에서도 변화가 나타난다. 과거 해방 이후 이루어진 사회개혁 조치들은 봉건사회에서 여성이 국가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던 것과 달리, 여성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구성원으로 호명함으로써 국가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국가가 여성을 노동자로, 국가구성원으로 지위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여성은 권리를 획득함과 동시에 국가구성원으로서 의무를 하였다. 과거에 국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고 권리를 부여받지 못했던 여성은 권리의 획득을 통해 자신을 정치, 경제, 사회적 존재로 인식하면서 그에 따른 다양한 역할을 행해 왔다. 그 과정에서 국가, 수령에 대한 충성심 역시 여성의 규범과 행위의 중요한 준거가 되어 왔다. 하지만 식량난 이후 국가로부터 혜택을 부여받지 못하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이 상실됨에 따라 더 이상 경성은 국가에 종속된 주체가 아닌 국가로부터 독립된 주체로서 다양한 행위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비법적인 장사를 시작으로 시장 규제에 대한 저항, 지역과 국경의 이동 등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고, 국가에 대한 인식 또한 변화해갔다. 국가에 대한 의존이 가능했던 과거의 물적 조건과 달라진 현재에는 국가에 대한 의존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국가가 아닌 개인을 더 중시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국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여성이 국가와 관계를 맺는 방식의 변화와 더불어 북한 당국 역시 여성에 대한 접근 방식, 관계 맺는 방식의 변화를 피할 수밖에 없고, 이

는 사회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는다.

4. 경제 공간의 확장과 여성 행위의 다양화

1) 사적 이익의 창출자로서 여성

해방 이후 북한 당국은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노동하는 주체로 정체화하는 시도를 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성 노동을 위한 모성 보호 휴가 등 다양한 정책적 조치를 통해 여성이 노동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당국의 조치는 북한 여성들로 하여금 노동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게 하는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이 때 노동은 북한 당국이 제시한 규범의 틀 속에서 수령과 국가를 위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임무로 담론화되었다. 여성의 노동은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의미화되었을 뿐이었다. 여성이 행하는 노동은 사적 이익을 축적하는 활동이 아니라 국가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배급 등을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구였을 뿐이다.

하지만 시장의 확산에 따라 여성이 행하는 노동은 더 이상 국가 영역에 속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적 이익을 창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생존을 위해 시작한 시장활동은 그 자체가 기존 규범에 대한 도전이었다. 시장활동을 위해 노동을 중심으로 규율화되었던 일상과 노동 규범으로부터 이탈하였고, 가정과 거주하던 지역을 떠나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하는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공식적인 영역에서 헌신적으로 노동하는 것이 도덕적이고 장사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겼던 규범과 도덕이 퇴색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부끄러운 일’로 여겨지던 장사가 이제는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장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답답하게’ 여기는 상황으로 변화하였다. 국가가 인정하는 일만을 노동으로 수용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사회적 인정을 받으려했던 것과 달리, 시장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부를 축적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이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이 되었다. 그리고 빈 배낭을 들고 오면 ‘부끄러움’을 느끼고, 최대한 배낭을 무겁게 해서 지니고 다니는 것을 ‘능력’으로 여기게 되었다.¹⁶⁾ 시장활동을 통해 기존에 사회적으로 인정되던 ‘능력’의 내용이 변화된 것이다.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북한 여성들은 스스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고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많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여성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여성들은 국가 영역의 자원, 개인적 자원을 동원하여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식량난 이후 시장활동의 주요 주체로 등장한 이들 중 하나가 돈주이다. 북한의 ‘돈주’가 자본주의적 어법으로 경제인, 기업가라 할 수 있는데, ‘돈주’는 ‘돈의 주인’이라는 뜻으

16) “이렇게 배낭을 행방 갔다 하게 되면 배낭을 빈 배낭 가져오잖아요. 찌꺼기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막 부끄러우세요 거기서는. (왜요?) 재간이 없어가지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찌꺼기 바꿔왔냐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배낭이 무거우면 많아야 “어~~ 너 잘바꿨다” 이래요 그래야 리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로 과거 고리대업자를 지칭했던 말이라면, 최근에는 자본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이들을 칭한다. 최근 돈주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 ‘투자’의 개념으로 공장·기업소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자본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직접 지배인이 되어 생산 및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수요가 높은 기존 공장에 잘 아는 종업원을 지배인이거나 공장장으로 앉히거나 이들과 계약관계를 맺어 이윤을 나누어 가진다. 또는 직접 업체를 운영하기도 한다. 홍민 외(2016)의 연구에 따르면, 공장과 기업소의 자재 수급, 생산, 보수·시설 관리, 생산물 처분 등의 활동이 시장을 경유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유통에 있어 돈주가 운영하는 사설 운수업체가 늘어나고 있다.¹⁷⁾ 이처럼 시장을 중심으로 경제인, 기업가가 성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 역시 중요한 경제인으로서 성장하는 모습이 발견된다. 북한의 돈주 중 여성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추산되고 있지 않지만, 최소한 매대 장사는 거의 다 여성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로서 여성의 수는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연구자가 만난 북한이탈여성 중에 사진관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여성이 있었다. 이 여성은 ○○도에서 처음으로 사진현상소를 꾸렸고, 도당 책임비서와 사업을 해서 두 차례의 건물을 건설한 경험이 있다. 처음에는 시 내에 편의건물이 없어 건물을 짓고 그곳에서 사진관을 운영했다고 한다. 두 번째는 도에서 필요한 아파트 건설 사업에 대한 책임을 모두 졌고, 도당책임비서가 돌격대를 꾸려주는 등의 지원을 했다고 한다. 이 여성이 건설사업을 책임진 것은 자신의 사진관 사업을 성공시키고 확장하기 위한 일환이기도 하고, 도당책임비서와의 관계를 통해 사업의 기반을 닦고 사업 추진의 힘을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였다. 그 결과 성공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고, 화폐개혁 당시에도 사전에 정보를 얻어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개인적 차원에서는 경제적 부를 창출하면서도 도의 경제적 부분을 일정 책임지는 주체로서 활약하는 여성들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

한편, 국가 경제 영역에서도 여성이 경제적 주체로 활약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 김정은 시대 들어 경제 관련법들을 개정했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기업소법」이다. “개정된 기업소법에서는 우선 기업의 경영권이라는 새로운 개념·범주가 등장”하면서 “국영기업에게 ‘실제적인 경영권’이 부여”되었다.¹⁸⁾ 기업 경영권의 부여는 시장의 확산으로 인해 “기업의 실질적인 자율성 및 의사결정권한은 국가가 허용한 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인한다.¹⁹⁾ 실제 공식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공식경제 영역에 포섭되지 않는 영역에서 사기업이 출현하고 있고, 각 기업들은 자율성과 능력에 근거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내고 있다. 양문수·윤인주(2016)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에서 개인사업체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개인투자·운영사업체의 증가, 특히 자영업의 범위를 뛰어 넘는 타인 고용 개인사업체의 증가”가 발견되고 있다.²⁰⁾(양문수·윤인주, 2016:79). 이러한 실질적인 경영권의 부여는 기업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기업을 경영하는 위치에 있는 사

17) 홍민 외,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 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6, 15-16쪽.

18) 양문수, “김정은 집권 이후 개정 법령을 통해 본 ‘우리식경제관리방법’”, 『통일정책연구』 제26권 2호, 2017, 87쪽.

19) 양문수, “김정은 집권 이후 개정 법령을 통해 본 ‘우리식경제관리방법’”, 『통일정책연구』 제26권 2호, 2017, 87쪽.

20) 양문수·윤인주, “북한 기업의 사실상의 사유화: 수준과 추세에 관한 정량적 분석”. 『통일연구』 제20권 제2호, 2016, 105쪽.

람의 역량을 요구한다.

기업소의 자율성과 경영권의 부여는 여성 경영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북한에서 여성 경영인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공장, 기업소, 상점 등의 지배인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여성경영인에 해당한다고 할 때, 주로 여성경영인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서비스업에 종사한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시장화가 되면서 여성의 진출과 경제사회적 성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대표부문이 상업이다. 상업 분야에서 여성지배인의 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 많고,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현재적 지위를 차지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돈주나 지배인처럼 가시화되는 여성들 외에도 각 영역에서 자신의 경제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여성들이 있다. 이들은 국가 영역에서 습득한 기술과 숙련을 활용하거나 시장을 통해 스스로 역량을 개발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다. 어떤 여성은 전문학교에서 피복과를 다니면서 습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공장에는 적만 걸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었다. 이 경우는 계획에서 축적한 숙련을 활용하여 시장에서 소득을 창출한 사례이다. 또다른 경우도 간호원으로 전문성을 획득한 후 병원을 그만두고 개인적인 의료활동을 하여 돈을 벌었다.

스스로 경제활동을 위해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시장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애초에 식량위기 당시 장사로 먹고 살기 시작한 여성은 시장활동에서 자연스럽게 장사의 기술과 요령을 발굴, 습득해나갔다. 그러한 경험의 축적이 시장의 확대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데 자원이 되기도 했다. 시장활동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여성들은 시장활동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했다. 개인적 특성이 장사에 부합하나도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장사와 관련한 정보를 얻고 수완을 발휘하는 것은 경험 등을 통해 개발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여성들은 시장활동과 관련한 역량도 스스로 발굴하고 개발해가고 있다. 시장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수완을 발휘하게 된다. 기술이나 마케팅 등 경영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과 훈련의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들은 장사 과정에서 손해도 입고, 여러 어려움을 겪고 해결해가면서 시장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축적해 간다. 이처럼 북한 여성들은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능력을 개발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 자원들을 동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 과정에서 성공하는 여성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여성들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기존의 정치적 자본, 경제적 자본의 수준이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적 구조와 질서의 틀 속에서 여성이 주체화되는 것이 쉽지 않은 않다.

결국 여성이 안전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공정한 기회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비공식적, 비합법적, 비체계적으로 순환되는 자본과 권력의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과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마련의 경로와 방법, 사업에 대한 정보와 공정한 경쟁의 기회 제공의 방법 등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 여성이 남성 중심적 권력과 질서에 의존하지 않고 합법적이고 투명한 경로를 통해 경제활동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2) 소비와 문화 주체로서 여성²¹⁾

시장은 거래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공간이면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그리고 다양한 외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여성들은 시장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생산자이기도 하면서, 소비의 공간이자 문화가 유입·유통되는 공간인 시장에서 소비와 문화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시장의 확대는 소비 방식과 내용을 변화시켰다. 시장을 통해 ‘머리가 트였다’ 라는 것은 정보에 대한 수집과 획득, 삶을 꾸려나가는 전략의 획득과 실천 등을 의미하고, 이 때 수집된 정보와 실천의 양식에는 ‘유행’ 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북한의 젊은이들에게 유행의 원형은 ‘남조선’, ‘자본주의’, ‘여성’ 이 시장의 주요 코드를 이루는 가운데 되새겨진다. 북한 사회에서 시장은 물질생활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되는 일상적인 공간이 되고, 예전과는 다른 문화를 생성해내는 공간이 되었다. 시장에서는 남한의 드라마와 영화와 같은 DVD, 이를 볼 수 있는 전자제품이 유통되고 있고,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보게 된 남한의 화장과 패션 등이 유행의 흐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새로운 문화의 유입과 유통은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 소비된다. 그리고 직접적인 소비는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시장에 가서 진열된 물건들을 보며 새로운 사물에 대한 호기심과 소비의 욕구를 키우는데, 이러한 행위는 시장을 경제활동의 공간 이상인 소비와 문화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²²⁾ 또한 북한 당국 역시 화장품 등 경공업제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품들을 생산하고, 다른 국가의 상품의 질에 못지 않은 상품을 생산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물품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의 공간의 확장, 내용의 다양화는 여성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소비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다. 대표적인 소비 활동으로 외모가꾸기, 집가꾸기 등을 볼 수 있다. 2000년대 이후부터 본격화된 외모 가꾸기의 유행은 처음에는 “박쥐옷” 과 티셔츠·종대바지·시슴슈즈를 따라 하느라 중국에서 들어온 옷감으로 비슷한 의상을 만들어 입고 신발도 찾아 신는 수준에서 시작했으나,²³⁾ 적극적으로 화장과 성형수술 등을 통해 외모를 가꾸고 주제를 개조하는 등 유행을 따라 갈 뿐만 아니라 유행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CD나 DVD, TV를 통해 접하게 되는 외부인의 외형과 생활 양식을 자신의 수준에서 모방하며 전유하여 특정시기의 유행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다.²⁴⁾

이러한 소비는 ‘취향’ 을 만들어내면서 개인성을 더욱 강화한다. 시장 공간의 다양한 물품은 선호를 만들어내고 그 선호는 취향으로 이어진다. 취향은 개인의 고유한 것이며, 그 취향이 우월성을 내포하기 위해서는 타인과 구별되는 취향이어야 한다. 그리고 소비는 개인의 욕망을 알게 되는 과정이며, 표출하는 수단이다. 새로운 욕망을 발견하고 그러한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실천의 과정에서 기존의 규범을 위반하는 경우들이 생겨난다. 그리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모방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욕망을 발견하는 것은 기존의 질서와 규범에 대한

21) 이 부분은 필자의 “북한의 시장화와 젠더 정치”(북한연구학회보, 2014)에서 발췌하여 재정리하였다.
 22) 조정아·조영주·조은희·최은영·홍민,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 160.
 23) 김석향, “1990년 이후 북한주민의 소비생활에 나타나는 추세 현상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16권 제1호, 2012, p. 202.
 24) 조정아·조영주·조은희·최은영·홍민,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 216.

인식의 전환을 야기할 수 있다. 특정한 문화를 소비하고자 하는 욕망과 기존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은 새로운 욕망을 창출하는 과정이며 그러한 욕망을 직접 실현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은 기존의 문화와 사회적 질서를 재평가하고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때, 새로운 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변화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소비는 개인이 개인에게 집중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타인의 취향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타인과 동일시 또는 차별화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간다. 과거 획일적이고 균질적이었던 소비 행위가 다양한 층위와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여성들은 ‘차이’에 대해 인식하게 된다. 무엇이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어떤 취향이 우월한 것이고 그러한 취향을 갖는 이들은 누구인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소비를 통해 개인을 인식하게 되고, 어떤 문화를 선택하여 수행하는 존재가 될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소비와 욕망, 취향 등이 어떻게 선택적으로 구성되는지, 어떤 이에게 욕망과 취향이 허락되는지 등을 인지하게 됨으로써 사회 구조와 질서에 대한 또다른 시각을 갖게 된다. 그런 점에서 소비하는 여성은 소비를 통한 문화의 재생산 주체이기도 하면서 자신의 정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소비를 통해 드러내고 수행함으로써 북한 사회의 구조와 질서, 권력을 재현해낸다.

5. 나오며

지금까지 시장화를 통해 여성들이 자신의 행위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경험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여성 주체의 경험을 살펴보았다. 각 경험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맥락, 또는 그 경험이 한계에 부딪히는 과정, 그리고 여성의 행위들 순간순간에 이루어지는 선택의 맥락 등을 깊게 다루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과거와는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모습들은 북한 사회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북한 여성의 경험은 북한 사회의 위로부터 혹은 아래로부터의 변화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관찰의 대상이다. 덧붙여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노력이 기존의 젠더 질서를 활용하는 방식, 이를 통해 젠더를 재구성해내는 방식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 이는 북한의 불평등한 젠더 구조와 질서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불평등한 젠더 구조에 대한 관심은 결국 이를 통해 체제를 유지하는 북한 체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국가적 기획에 북한 여성이 어떻게 순응, 협상, 저항해나가는지를 통해 기존 질서의 유지 여부와 변화 가능성에 대한 탐색이 가능하다.

현재 발견되는 북한 여성의 주체성 수행의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북한 여성 내부의 다양한 차이는 더욱 깊게 논의되어야 한다. 어떤 경험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변화의 양상이 다르며 그 의미 역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변화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중요한 사안이다. 새로운 여성 주체의 등장이 그 자체만으로 사회 변화에 기여한다고만 볼 수 없다. 주체로서 행위하기 위해 자원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사회질서와 체제를 유지 혹은 강화시킬 수도 있고 균열을 낼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 여성의 행위들 속에서 나

타나는 양가적인 또는 다층적인 측면이 함께 논의될 때 이들이 행하는 다양한 행위가 갖는 함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